

오순절 후 스물다섯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5<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11월 14일 오전 10시

인도: 김재우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새 1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6 번 요한복음(John) 14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요한복음(John) 8:1-11</b>	임소영 집사
찬 양 Anthem	“평 안”	찬양대
설 교 Sermon	<b>“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The Heart of Our Heavenly Father)</b>	김윤민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그의 생각”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31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윤민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려지게 하시고,

분주하기만 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10:27, 고전 10:3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한글개역 **요8:11**)

“‘No one, sir,’ she said. ‘Then neither do I condemn you,’ Jesus declared. ‘Go now and leave your life of sin.’” (NIV **John 8: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14 (주일)	11/15 (월)	11/16 (화)	11/17 (수)	11/18 (목)	11/19 (금)	11/20 (토)
	대상3,4	대상5,6	대상7,8	대상9,10	대상11,12	대상13,14	대상15
본문	히9	히10	히11	히12	히13	약1	약2
	암3	암4	암5	암6	암7	암8	암9
	시148	시149,150	눅1:1-38	눅1:39-80	눅2	눅3	눅4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1/17 오후7:30)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삿6:11-24)
토요 새벽기도회 (11/20 오전6:30)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60:1-12)

지난 주일(11/7) 말씀

전도의 8가지 습관 (7) –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눅 19:1-10)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히브리어로 Zakai)’를 가리켜, Walter Rauschenbusch 목사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삭개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게 만드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예수님과 만남과 교제를 위해,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까? 1)첫째,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와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이고(눅19:8), 2)둘째, 우리는 서로의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눅 19:9), 3)셋째,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눅19:10). 특별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0)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 낯선 사람, 소외된 사람, 외면 당하는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닮은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